

사회

“친구야 미안해, 용서해 줘”

전교생 앞에서 무릎꿇은 가해학생

감동의 박수 갈채... 피해학생도 미소

광산경찰, 송광중서 학교폭력예방 '애정남' 교육 현장

“제가 이 친구를 괴롭혀왔어요. 친구야 정말 미안해...”

9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송광중학교. 개학 첫날, 학교 폭력 가해학생이 피해를 당한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 송광중 920여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에 방교육'의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코너에서 '고백'시간이 주어졌다.

애정남을 이끌고 있는 광주 남부경찰서 방법순찰대 소속 김형진(23) 상경이 “학교 폭력 가해학생 중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드세요”라고 말했다.

순간 장내는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머뭇거렸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한 학생이 용기 내어 손을 들었다.

2학년 김모(15)군은 무대 위로 올라 수줍은 투로 “제가 친구를 괴롭혔어요”라고 김 상경에게 말하며, 강당에 앉아있는 같은 반 김우(15)를 가리켰다.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무대에 올랐다. 처음엔 두 학생 사이에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다.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던 김군은 “미안하다”라며 입을 뗐다. 이어 고개를 숙인 채 “제가 이 친구를 때리고 못살게 굴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친구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어. 용서해줘”라고 사과했다.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상경은 김군에게 “용서해 주는 건가요? 진정성 있게 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군은 곧바로 전교생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는 절대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친구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그때”라고 답했고 학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김군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무단 결석으로 수업일수를 겨우 채웠다. 하지만 이날 사과와 함께 전교생 앞에서 3학년이 되어서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했다.

남정우 송광중 학생부장은 “오늘 광산경찰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스스로 친구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특히 애정남 코너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별 아쉬워하며... 9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대여고에서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이 정들었던 교실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폭력 가해자 첫 자진 신고 나왔다

광주 여중생 북부경찰에

광주 경찰이 학교 폭력 근절활동을 전개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가해자의 첫 자진신고 사례가 접수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일진회 등 폭력 서클과 인터넷상 왕따 행위의 가해학생이 자진 신고하면 입건하지 않고 피해 학생이 보복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9일 광주시 북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3)양이 선 후배들과 함께 다른 학교 친구 B(13)양을 폭행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양 등 가해학생 7명은 지난 6일 오후 6시에 광주 북구의 한 공원에서 교우관계를 이유로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양은 B양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자주 만나는 등 관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소년 선도시설과 연계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선도조치를 할 방침이다.

광주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00일간 학교 폭력 근절, 선도 보호활동을 펼

치고 있다. 경찰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과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통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구 중학생 유족들 8억 손배소

학교·가해학생 부모 상대

지난해 대구에서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A군의 유족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9일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일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중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법인, 사고가 발

생한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 10명이다.

A군과 P양의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중학생 2명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중학생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피해학생의 각각의 유족들에게 4억여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장흥서 농협조합장 숨진 채 발견

불법선거 조사 받아

퇴임을 하루 남겨놓은 단위 농협 조합장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일 오후 5시 15분께 장흥군 관산읍의 한 저수지에서 모 농협 조합장 이모(62)씨가 차량에 탄 채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직 조합장인 이씨는 최근 차기 조합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선거관련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주변인과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우산동 또 편의점 강도

한달새 3번째 발생

광주시 우산동에서 또 편의점 강도가 발생했다. 같은 지역에서 한 달 사이 3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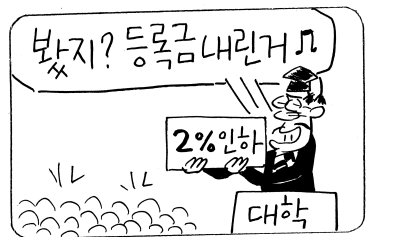
9일 오전 5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또 편의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젊은 남성이 침입해 흥겨운 여중생 49)을 위협, 현금 22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설 당일인 23일

과 지난 7일 새벽 광산구 우산동 일대 편의점에서 일어난 강도사건 용의자와 동일범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키 175cm에 30대 초반의 흰색 운동복 차림의 남성을 쫓고 있다.

한편, 광산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특별 방법을 실시하는 한편,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



K리그 승부조작 가담혐의 전 국가대표 최성국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33) 선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 주들이 복권수익금을 편취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광주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컵대회 두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당시 팀동료 김동현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의한 강요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줄곧 변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K-리그 출신 안현식(25), 이세주(25) 선수에게도 승부조작 가담을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미혼모 종이가방서 숨진 신생아

○가출했다가 컴퓨터를 찾은 20대 미혼모의 종이 가방에서 숨진 신생아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모 청소년 컴퓨터를 찾은 김모(여·20)씨가 갖 태어난 남자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 컴퓨터 담당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7일 새벽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왔다. 아이가 이미 숨져서 바닐라봉지에 싸서 종이가방에 담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총인 비리 광주시 간부 2명 체포

광주지검, 해촉 심사위원 7명도 수사 대상... 市, 파장 촉각

광주시 총인저감시설(하수 방류수의 총인 함유량을 낮추는 시설) 입찰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시공사 임원들에 이어 서기관급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시공사인 대림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소명을 들은 뒤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시는 충격 속에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9일 “지난 8일 오후 늦게 총인저감시설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4급 서기관급

이모(57)씨와 유모(59)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날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날 김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총인저감시설 설계심사분과위원이었으며, 이씨는 분과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건설기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시공사 선정 당시 주무부서에 근무했다.

광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 26명, 외부전문가 24명 등 50명으로 건설기술심사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이 가운데 무작위로 위원들을 추출해 설계심사분과위원회를 구성,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검찰은 총인저감시설 시공사 선정의 권한이 있는 분과위원뿐 아니라 ‘잠재적 심사위원’인 50명에 대해 로비 시도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표는 소위원회 심의위원 또는 인력 풀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과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체포되기 전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대로 찾아온 입찰참여 업체 관계자를 만났고 외부에서는 안 만났다”고 말했다.

유씨는 100점 만점에 배점이 35점인 100점 만점에 배점이 35점으로 가장 높은 하수 및 환경분야 위원으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35점 만점을 줬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가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1등을 줬다가 광주시로부터 해촉된 심사위원

7명에 일단 초점이 맞춰진 듯한 인상이었다. 유씨를 제외하고 배점이 17점, 13점, 7점, 5점인 토목시공 분야, 전기 및 계측 제어설비 분야, 토목구조 분야, 디자인 분야에서 모두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만점을 준 위원 7명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림산업 컨소시엄만이 아니라 입찰 참여 업체 전체적으로 금품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대림산업 임원인 윤씨와 김씨 등의 지시로 로비자금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사무소장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총사업비 982억원의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인 방류 허용치를 2 당 2mg에서 0.3mg으로 낮추기 위한 시설공사로 지난해 3월 터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으며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에 선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출입시기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3월2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